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제28대 장로, 20명 선출기로

3월 20일 IV부 예배후 공동의회에서

오늘 후보자 30명 발표, 기도로 준비하며 선택해야

교회는 오는 3월 20일 제28대 장로 20명을 선출기로 했다. 교인의 증가와 교회내 각 부서의 다양화, 세분화 및 교인들을 돌볼 일꾼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지난 주일(3월 6일) IV부 예배후 공동의회를 열어 장로선거를 위해 일정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을 당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고 당회는 이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9일(수) 임시당회를 열어 선출예정자의 1.5배수인 30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발표하였다.

온 교우들은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하는 일꾼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여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3월 20일 선거에는 등록세례교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총유효표수의 삼분의 이를 득표한 사람이 피택자로 결정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장로 피택자는 4월부터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후 노회 고시부가 주관하는 장로고시에 응시하여 합격되면 교회절차에 따라 10월경 장로장립을 할 예정이다. 후보자 명단은 3편을 참조하면된다.

환 목사), 개인간증방법(이조웅 목사), 방문전도법(박정규 목사), 하나님의 계획(이인우 목사), 사람들의 상태(이홍성 목사), 하나님의 예비(김용기 목사), 사람들의 반응(장경철 목사), 결신시키는 법(이종대 목사), 말씀훈련(한용관 목사), 질문처리법(홍창민 목사), 관계중심전도(성봉환 목사), 전도인 배가법(김수상 목사) 등 12과목이고 일정장소를 대상으로 현장전도를 겸하게 된다.

청년1부에서

농어촌교역자에게 설교집 기증

청년1부는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중 군이하 지역에서 목회하는 농어촌 교역자 40명에게 금번 목회자세미나의 교재인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설교(상)」와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각 한권씩을 기증했다.

이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는 농어촌 교역자들의 수고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조그마한 정성으로 준비하였다.

중등3부에서

학부모 초청기도회

중등3부는 오늘 3월 20일 오후 1시부터 교육관 514호, 중등3부실에서 학부모초청기도회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봄, 가을 1년에 두 번씩 실시되며 중3학생들의 올바른 신앙성장과 생활지도, 학습지도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토의하는 시간으로 중등3부 활성화에도 중요한 모임이다.

교우들 중에 중3학생을 둔 가정의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베다니집에
설교집 배부

전도위원회는 한국교정전교회의 요청에 따라 교도소, 소년원 선교와 여자 출소자의 수용보호시설인 베다니집에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집 120부를 배부했다.

교구양육위원 실무교육

오전 4시 30분과 5시 30분에

새가족위원회(위원장 최대원장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갈릴리홀에서 제2차 양육위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위원회 산하 행정부와 양육부 양육위원은 물론 지난 달에 임명을 받고 한달 동안 양육 활동을 했던 교구양육위원은 전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오늘은 '양육의 기본적 원리'라는 주제로 홍창민 목사(위원장 지도)의 강의가 있고 양육사례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이 때에 모든 양육위원들은 그동안 새가족들을 양육한 내용을 양육일지에 기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새가족위원회는 양육위원들의 영성훈련을 위하여 금주 15일(화) 19:00-22:00까지 사랑부실(교육관107호)에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며, 다음 주일(20일)부터 4월 마지막 주일까지 6주 동안 매주 12:30-14:00까지 베다니홀에서 자체적으로 전반기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양육하며 관리하는 새가족위원회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찬양대, 독창자 임명

상주간사에 윤영희 선생

찬양위원회는 각 찬양대의 독창자를 선정하여 임명하였다.

·가브리엘찬양대 : 최영희, 이종운, 서정경, 백수진, 박동희, 백수연
·임마누엘찬양대 : 김희숙, 노효영, 노영광, 박경현, 김미경, 윤혜설, 안신숙, 안광영
·아멘찬양대 : 임정진, 양민정

한편 찬양위원회는 찬양대의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각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절실함에 따라 윤영희 선생을 상주 간사로 임명했다. 윤영희 선생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주일에 상주하며 찬양대 관계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관섭 장로 회장에 피선

지난 2월 22일 중앙감리교회에서 한국교회 음악협회 제40차 정기총회에서 우리 교회 이관섭 장로가 지난 회기에 이어 회장으로 재선되었다.

공동의회 소집공고

일시 : 1994. 3. 20. IV예배 후
장소 : 본당

안건 : 제28대 장로투표

대상 :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당회장 신성종 목사



제2교육관 기공예배 제2교육관 기공예배가 봄을 시샘하는 꽃샘바람이 맴돌아치는 가운데 지난 3월 9일(수) 수요일 IV부 예배후 제2교육관 신축현장인 뱀바게광장에서 열렸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기공예배는 당회서기 우기전 장로의 성경봉독, 건축위원장 오정현 장로의 기도, 기획실장 윤명식 장로의 경과보고 및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진행됐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설교에서 제2교육관을 지어 천국일꾼을 양성하는데 사용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과정을 잘 살피며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제2교육관은 96년 4월 30일 완공 예정이다. 모두가 제2교육관을 위해,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돕고 하나되는 일들이 필요하다.

본

본문 마태복음 25장 1-13절에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의 결혼예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예식에는 먼저 약혼이 있고 다음에 결혼예식이 있으며 셋째로 잔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예식에도 이름과 순서가 조금 다를 뿐 이 세 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약혼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정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보다 법적으로 훨씬 더 무겁고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둘째로 잔치를 합니다. 우리는 결혼예식을 먼저 거행하고 잔치를 배설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잔치를 먼저 하고 결혼예식을 합니다. 오는 손님들마다 먼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혼예식을 거행하는데 그 예식은 흔히 밤에 합니다. 밤에 하는 이유는 첫째로 그 나라는 너무나 더워서 낮에는 도저히 결혼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낮에는 다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할 수도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를 않기 때문에 밤에 결혼예식을 행합니다.

1. 비유 해석

첫째로 신랑이 나오는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열 처녀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는데 이 신랑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 처녀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열 처녀 중에서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는데 충현교회 그러면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시적인 교회의 불완전성입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어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사는, 즉 기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 밖에 준비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성도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등과 기름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신앙생활과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열 처녀들은 다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등은 사람 앞에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행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등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름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직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이 밖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충만함을 받은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로 신랑이 밤중에 왔다는 것은 종말을 말합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개개인이 죽을 때,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 우리는 신랑을 맞게 됩니다. 둘째로는 역사적인 종말론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우주적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는 신랑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신랑되신 예수님은 밤중에, 전혀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워 가시고 또 오실 것입니다.

2. 비유의 내용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로 하여금, 신부들로 하여금 그의 기름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둘째로 그 혼인잔치, 기름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비에는 부적합한 준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기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은 예복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복은 바로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의의 세마포 옷이라고 부릅니다. 또 본문에서는

충현강단



열 처녀의 비유

(마 25:1-13)



신성종

<목사·당회장>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기름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적합한 준비를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열 처녀 비유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어도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잠잘 때가 있습니다. 세속의 잠에 빠질 때도 있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준비만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신랑되신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바로 기름입니다. 성령이 바로 기름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바로 기름입니다.

다섯째로 구원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너무나 매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어느 누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아내의 믿음을 가지고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서 자녀가 구

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지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비유가 주는 교훈

첫째로 형식만 갖춘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문제는 기름입니다. 등을 갖추고 있지만 등 속에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때를 분별하는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는데도 계속해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잔다면 그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써 먼동이 떠오르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바로 심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재림하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림을 안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보면 너무나 무덤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벧후 3:9).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넷째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텐데 그것은 갑자기, 밤중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신앙가지 못하고, 기름 가지지 못하고 부끄럽게 벗은 채로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타고 오시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그러나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형식만 갖춘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재림은 어느날 갑자기, 밤중에, 예기치 못했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를 하되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종류의 어머니



결혼해서 자녀만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엄마 노릇을 해야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어머니 중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는 파출부형의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엄마를 '맘마'라고 부른다. 둘째는 이것도 저것도 않고 일로만 엄마 노릇을 하는 '실마' (실마)가 있다. 셋째는 앞의 두 종류의 어머니와는 달리 참으로 어머니 노릇을 하는 영원한 어머니 모형인 '엄마' (嚴母)가 있다. 그런데 이 엄마다운 어머니는 그 낳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랑으로만 엄마다운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글 / 신성종 목사

제28대 장로 후보자 명단



김인관	
나이	63
교구	12
봉사 부서	소망부 교사 예배위원회



안종욱	
나이	59
교구	20
봉사 부서	회계부



이인상	
나이	58
교구	11
봉사 부서	예배위원회



최명환	
나이	56
교구	11
봉사 부서	회계부 상조회



임무천	
나이	53
교구	20
봉사 부서	청년1부 부감 제직회 서기



한송규	
나이	52
교구	7
봉사 부서	초등2부 부감



정정주	
나이	52
교구	22
봉사 부서	교회직원



황의만	
나이	46
교구	16
봉사 부서	장년1부 부감



양종섭	
나이	53
교구	10
봉사 부서	소망부 부감



전홍렬	
나이	51
교구	17
봉사 부서	임마누엘 부대장



강봉수	
나이	49
교구	5
봉사 부서	장년2부 부감



황영일	
나이	48
교구	2
봉사 부서	장년3부 부감



이병옥	
나이	61
교구	5
봉사 부서	사랑부 부감 군전도회



이종섭	
나이	59
교구	4
봉사 부서	가브리엘 부대장



고병국	
나이	56
교구	4
봉사 부서	초등3부 부감



이지걸	
나이	54
교구	16
봉사 부서	에바다부부감



박미련	
나이	53
교구	2
봉사 부서	중등1부 부감



진홍용	
나이	52
교구	4
봉사 부서	초등1부 부감



이정우	
나이	51
교구	4
봉사 부서	차량관리부



이동명	
나이	48
교구	19
봉사 부서	유치부 부감



박상준	
나이	62
교구	4
봉사 부서	전도위원회 군전도회



이승철	
나이	53
교구	16
봉사 부서	홍보실 자원봉사



최윤덕	
나이	53
교구	2
봉사 부서	탁아부 부감



김단용	
나이	50
교구	17
봉사 부서	중등3부 부감



김춘권	
나이	49
교구	1
봉사 부서	초등5부 부감



안동현	
나이	47
교구	3
봉사 부서	오케스트라 부대장



손철	
나이	46
교구	2
봉사 부서	시온부대장 의료전도회장



정홍식	
나이	46
교구	2
봉사 부서	할렐루야 부대장



김구형	
나이	45
교구	2
봉사 부서	새가족부부감



권명옥	
나이	43
교구	15
봉사 부서	영아부 부감

* 이 명단은 안수집사 대수별 · 나이별로 작성한 것입니다.

상조회-이렇게 운영합니다

상을 당한 가정은
즉시 상조회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교회는 상(喪)을 당한 교우들의 가정을 돕기 위해 상조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상조회 회장(충현동산 관리부장 겸직)을 맡고 있던 박치민 장로가 소천함에 따라 지난 2월 정기 당회에서는 상조회 회장에 김여순 장로를 임명함과 동시에 장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위원들과 그 이하 조직들을 결정했다.

상조회는 상을 당한 가정의 여러 일들을 돌보아주는 일을 하게 된다. 상조회에서 마련한 상조회 시행세칙을 보면 장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중 최소 2명은 상이 끝날 때까지 상가대표와 상례제반 사항을 의논하고 상가를 도우며 충현교회 상조회 운영취지를 잘 이해시키며 상가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했다.

또한 집행담당 교역자는 상조회와 긴밀한 협조 가운데 상례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고 상가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물품을 전도와 구제의 차원에서 염가로 구입하여 운영하되 분기별로 당회에 보고하여 청명한 예산관리, 집행이 되도록 했다.

조직도 보강하여 각 교구에서 교구장 및 교역자가 추천하는 남녀 1인씩을 봉사담당으로 정하여 장례진행 준비를 총괄케 했다.

- 상조회장 : 김여순 장로(483-7536)
- 운영위원 : 교구위원장(강은원 장로, 962-4486) 새가족위원장(최대원 장로, 234-4011)

- 전도위원장(김재명 장로, 400-9381)
- 최성현 장로(916-2648), 문흥구 장로(478-1081)
- 강 협 장로(422-7973), 이하영 장로(546-6391)
- 박인건 장로(032-673-9557)
- 총 무 : 최명한 집사(427-1980)
- 행정담당 : 정정주 집사, 박상준 집사
- 재정담당 : 전홍열 집사, 강봉수 집사
- 차량담당 : 허명호 집사, 최진성 집사, 엄기정 집사
- 상례담당 : 주인홍 집사, 오인근 집사, 서동석 집사, 장봉순 집사, 장영창 집사, 설명동 집사
- 봉사담당 : 46명(교구당 남녀 각 1명씩: 교구장, 교역자 추천자)

상을 당한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교회나 상조회에 연락하는 일이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상조회 : 선교관 405호 (전도위원회와 공용)
- 직통전화 : 552-7750, 교환전화 552-8200(교 355, 주간중), 경비실 552-8200(야간에 이용)
- 상조회 회장이나 운영위원, 총무, 행정담당에게 연락해도 됨. (전화번호는 위의 명단 참조)



목회자세미나 개강 충현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이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21세기를 향한 장단갱신과 교회성장"이라는 주제하에 실시하는 목회자세미나가 지난 3월 7일(월) 개강예배를 드렸다. 5월 9일까지 총 10주간에 걸쳐 계속되는 목회자세미나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20분까지 모이는데 1교시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가 있고 2교시에는 매주 특별강사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지난 3월 1일 고 박치민 장로의 장례를 은혜중에 교회장으로 마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성도들께서 베풀어준 많은 기도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어오나 지면으로 대신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망인 명 정 옥 권사
장 남 박명호 자부 박형숙
장 녀 박선아
차 남 박민호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붙들어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18일(금), 19일(토) 케냐 한인연합 집회 인도
· 신성종 목사님 : 14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14일(월)-17일(목) 충현교회 부흥집회 인도
2.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소를 통해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3.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강단이 갱신되게 하소서.
4.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5. 각종 성경공부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6. 이 민족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21사단 교회당 기증 헌당예배

3월 3일(목), 군전도회 주관으로

군전도회는 지난 3월 3일(목) 육군 21사단내의 대대 교회당을 건축하여 기증하며 헌당예배를 드렸다.

연대 군목의 사회와 임성환 목사의 기도, 장경철 목사의 말씀, 여전도회 찬양대의 찬양 및 21사단 군중참모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마쳤다. 헌당예배를 드린 교회당은 군전도회의 보조로 지어졌다. 우리 교회는 기증서

를 작성하여 제21사단에 전했다. 이날 헌당예배에는 55명의 남녀 군전도회원이 참석했다.

▼ 21사단 교회당 헌당예배를 마치고 참석한 군전도회 회원들이 교회당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에는 94년도 1학기 장학금수여식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이 본당에서 거행된다. 총 101명에게 4,762만원이 지급되는데 수혜자는 오늘 4시 40분까지 본당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다.

농어촌교회 세 곳 지원키로

전도위원회는 94년도 1년간 도와줄 농어촌교회 세 곳을 추가로 결정했다. 강원 마현교회(이월순 목사), 충남 성광교회(서순석 목사), 경기 광림교회(김광호 목사)이다.

예배위원 및 안내위원 상반기 교육 실시

예배위원 및 안내위원의 상반기 교육이 3월 28일(월) 오후 7시 교회 만나홀 및 베다니홀에서 열린다. 예배위원 25명과 안내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교육에서는 예배위원 및 안내위원들의 중요성과 갖추어야 할 내용 등이 교육될 예정이다.

고등부 오케스트라 창단

교회학교 고등부는 예배의 찬양을 돕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찬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고등부 오케스트라를 조직, 창단했다. 이 오케스트라는 30여명의 학생들로 취미나 전공을 할 목적으로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고등부 예배시 및 특별찬양 시간에 활동하게 된다. 지휘는 현재 고등부 찬양대 지휘자인 전정구 선생이 맡는다.

직원모집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새로운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1. 미화직 : 남 O 명
심신이 건강한 40대 남성
2. 사무직 : 남 O 명
총무와 업무담당자, P/C 활용 가능자, 운전1종 면허 소지자

* 각항 공히 세례교인이어야 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세례증명서, 당회장추천서(타교인에 해당)

· 제출처 : 충현교회 사무국 (Tel 552-8200(교 402))